

▣ 다음을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현대 국어에서 ‘목적어’는 서술어의 동작이나 작용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다. 목적어는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실현되는데, 목적격 조사의 변이 형태로는 ‘-을, -를, -르’ 이 있다. 여기서 ‘-을’과 ‘-를’은 음운론적 변이 형태이며 ‘-르’은 ‘-를’의 준말이다. 그런데 체언 뒤에서 실현되는 목적격 조사가 생략되어 체언 단독으로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. 또한 목적어에 보조사 ‘-은, -도, -만’ 등이 실현되면서 목적격 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고 보조사와 목적격 조사를 함께 실현할 수도 있다.

중세 국어에서 ‘목적어’는 체언 혹은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목적격 조사 ‘-을/-를, -을/-를, -르’이 붙어서 실현되었다. 양성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다음에서는 ‘-를’로 실현되고 음성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다음에서는 ‘-을’로 실현되었다. 다만 중성 모음인 /l/ 뒤에서는 ‘-를/-를’이 모두 쓰일 수 있었다. 끝 음절의 모음이 양성 이면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다음에는 목적격 조사가 ‘-을’로 실현 되고 끝 음절의 모음이 음성이면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다음에는 ‘-을’로 실현되었다. ‘-를, -를’ 대신에 준말인 ‘-르’이 쓰이기도 하였다. 그리고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실현되지 않고, 체언 단독으로 나 체언에 보조사가 붙어서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. 그리고 명사구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목적어로 쓰일 수 있으며 명사절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목적어로 쓰일 수 있었다.

1. 밑글을 바탕으로 <보기>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**보기**

현대 국어의 예
㉠ 나 아직 <b>밥</b> 안 먹었다. ㉡ 그녀는 <b>철수의 팔을</b> 잡아당겼다. ㉢ 눈이 내려서 진수는 <b>한라산에 오르기를</b> 포기했다.
중세 국어의 예
㉤ 초국(楚國)옛 <b>천자기(天子氣)를</b> 행행(行幸)으로 마르시니 (초국에 있는 천자기를 행행으로 막으시니) ㉥ 뱀이 투길 아디 묻혀며서 <b>그 물 구부물</b> 원망호려 원망(怨望)로다. (배를 타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 물이 굽은 것을 원망호려 함이구나.)

- ① ㉠ : ‘밥’은 목적격 조사가 생략된 체로 목적어로 쓰였군.
- ② ㉡ : 체언 구실을 하는 구인 ‘철수의 팔’에 ‘-을’이 붙어서 목적어로 쓰였군.
- ③ ㉢ : 체언 구실을 하는 절인 ‘(진수가) 한라산에 오르기’에 ‘-를’이 붙어서 목적어로 쓰였군.
- ④ ㉤ : 체언인 ‘천자기’에 목적격 조사 ‘-를’이 붙어서 목적어로 쓰였군.
- ⑤ ㉥ : 명사절인 ‘그 물 구부물’에 목적격 조사 ‘-르’이 붙어서 목적어로 쓰였군.

2.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?

- ① 중세 국어에서 목적격 조사 ‘-를’과 ‘-를’은 항상 다른 음운 환경에서만 사용되었다.
- ② 현대 국어에서 목적격 조사는 중세 국어에 비해 음운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되었다.
- ③ 중세 국어에서는 체언 혹은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야만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.
- ④ 현대 국어에서 목적어에는 체언 혹은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보조사와 목적격 조사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.
- ⑤ 현대 국어에서 목적어는 중세 국어와는 달리 체언 혹은 체언 구실을 하는 구나 절에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가능하다.

3. <보기>의 ㉠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**보기**

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서 제삼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음운의 축약이라 한다. 거센소리되기가 이에 해당하는데, 예사소리 ‘ㄱ, ㄷ, ㅂ, ㅈ’과 ‘ㅎ’이 결합되어 거센소리 ‘ㅋ, ㅌ, ㅍ, ㅊ’으로 소리 나는 음운 변동이다. 그런데 이 현상은 여러 가지 음운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 변동보다 먼저 일어나기도 하고 ㉠ **나중에 일어나기도 한다.**

㉠ 놓고[노코], ㉡ 밝히다[발기다], ㉢ 훑하고[호카고], ㉣ 답한데[다칸데], ㉤ 꽃히다[꼬치다]

- ① a, b
- ② b, d
- ③ c, d
- ④ a, c, e
- ⑤ b, d, e

4. <보기>의 ㉠~㉣에 해당하는 단어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?

**보기**

합성어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. 특히 어근 사이의 의미적인 관계에 따라서 ‘㉠**종속 합성어**’ ‘㉡**대등 합성어**’ ‘㉢**융합 합성어**’로 분류할 수 있다. 앞의 어근이 뒤의 어근에 의미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것은 종속 합성어이고, 두 어근이 의미적으로 서로 대등하게 결합하는 것은 대등 합성어이다. 또한 두 어근의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은 융합 합성어이다.

- 비를 피해 처마 밑으로 **뛰어갔다.**
- 날씨가 험해 배가 **앞뒤**로 기우뚱거린다.
- 30°C를 **오르내리는** 무더위가 계속되었다.
- 하늘에서는 **겨울비**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.
-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**강산**을 지켜 냈다.

	㉠	㉡	㉢
①	앞뒤	뛰어갔다	강산
②	앞뒤	오르내리는	뛰어갔다
③	겨울비	강산	앞뒤
④	겨울비	오르내리는	강산
⑤	뛰어갔다	겨울비	오르내리는

